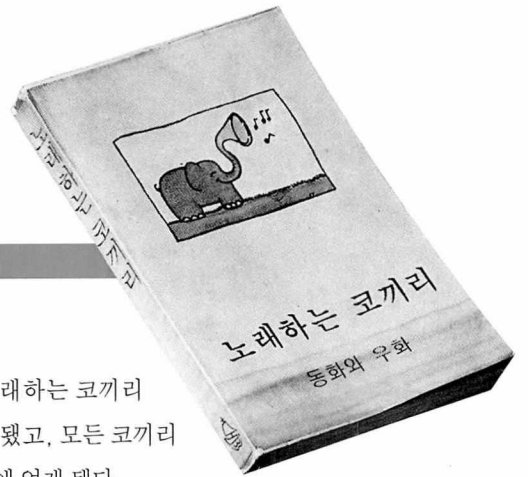


심신의 고통 치유해준 이야기의 힘

에박 피들러 외의 《노래하는 코끼리》

분도출판사/A5변형/280면/2400원



나는 여럿이 함께 하는 운동을 좋아한다. 우르르 뛰어 다니는 발소리만 큼 웃음소리도 크게 나는 놀이를 좋아한다. 어릴 적 '자유시간' 으로 주는 체육시간엔 늘 '개뺨다귀' 나 '발야구' 를 했다. 그래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며 자유시간을 보내는 여고시절은 무척 서운한 날들이었다. 지금은 함께 하는 놀이는커녕 무리 지어 버스따라뛰는 게 고작이지만, 동네 아이들 몰려다니는 소리가 들리면 예전의 감흥이 샘솟는다.

그래서일까, 동화책도 여럿이 나오는 이야기가 좋다. 독보적 존재가 현명함과 카리스마로 무리를 이끄는 이야기는 영 흥미롭지 못하다. 시끌시끌하게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아 갈등도 있고 배려도 있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노래하는 코끼리》(이인웅, 분도출판사)가 그렇다. 동화 31편, 우화 72편을 모은 오래된 책으로 '알미운 한 사람' 이야기도 많지만, 동물 이든 사람이든 어울리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특히 '사랑하는 마음은 애초부터 타고났고 지혜로운은 사상이며 시인인 스승에게서 배웠다' 는 어느 왕의 이야기와 '노래하는 코끼리' 를 배척하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하드라마' 에선 오래오래 머물게 된다.

'노래하는 코끼리' 는 갓 태어나 어미 배 아래 있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다. 점점 자라 어미 꼬리를 따라 다닐 때는 그 노래가 흥겨워 일부러 노래를 들으러 오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껏 노래 부르는 코끼리가 무리에 태어난 적이 없어, 다들 혼란스러워했다. 권위의 징표로 왜 가리를 등에 업은 대장 코끼리는 '노래하는 코끼리' 와 함께 살 수 없으며 무리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동

료들의 도움으로 노래하는 코끼리는 무리로 돌아오게 됐고, 모든 코끼리가 자기 왜가리를 등에 업게 됐다.

이 책을 처음 만난 건 자원봉사를 하던 어머니학교 사무실에서다. 사무실에 있는 서가를 훑거리다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을 발견하고 쉬는 시간 틈틈이 읽어나갔다. 조카들 생각도 나고 책꽂이에도 꽂아두고 싶은 욕심에 출판사에 물었더니, 어디어디로 찾아오라는 답을 받았다. 한여름, 장충동 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간 출판사에서 딱 한권밖에 남지 않았다는 책을 내줬다. 먼 길 왔다고 애장품을 준 마음이 고마워 속지에 책 장만한 날짜를 적고 고이 모셔뒀다. 그리고 책 읽을 때도 조금만 열고 책은 그대로 둔 채 고개를 돌리며 읽었다.

그 즈음 나는 머리 속의 종양을 잘라내고, 아직 수술의 고통이 채 가지지 않아 여전히 머리가 아플 때였다. 십년을 끈 두통과 무감각이 병일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 없어 누워만 지낸 병원생활은 몸과 마음을 무척 지치게 했다. 걷는 시간을 하루에 십 분, 이십 분씩 늘려가며 집앞 개울의 펄떡이는 은빛물고기를 볼 때마다 약해진 심신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다 어머니학교에서 일하게 됐고 또 이 책을 만났다. 노래하는 코끼리, 온 몸이 수정처럼 투명해 생각과 마음이 모두 드러나는 자코모 등 독특한 주인공의 낯선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바스러질 듯 누렇게 변한 책을 책꽂이 가장 높은 곳에 꽂아두고 오돌토돌한 껍데기를 볼 때마다, 왜가리 한 마리 등에 업고 즐겁게 노래하는 코끼리를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완쾌했음을 절감한다. —차정신기자

문화 이론과 문화 읽기

원승룡 · 김종현 지음/320면/12,000원

이 책은 현 시대 화두인 '문화'를 학문적·이론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많은 문화 연구의 이론들을 섭렵함으로써 문화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의 분석을 통해 문화와 연관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영화 속의 철학

박병철 지음/336면/12,000원

이 책은 관심이 있었지만 철학을 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들에게 친근한 매체인 영화를 통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자극하는 법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시각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도가 철학 개론

정진일 지음/304면/11,000원

이 책은 중국 철학의 역사상 가장 먼저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우주론과 인간론, 인식론과 수기론, 정치론 등의 견고한 철학체계를 형성 하였던 도가 철학에 관한 입문서이다. 도가 철학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하나의 이념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8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93

E-mail : phil6161@chollian.net

http://www.seokwangsa.co.kr